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 Torrance /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제30권 43호(다해) 2010-9-19

[묵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
<15세기, 목판화, 누렘베르크 국립박물관, 독일>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세상의 주인이신 당신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이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오나
당신의 말씀 부끄럽게 여기오니
당신을 따르기 위해
나를 버릴 줄도,
나의 십자가 질 줄도 모르오니
당신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피 흘려 당신을 따르진 못하오나
당신과 한 편임을 기뻐하고,
목숨 바쳐 진리를 증거하고 사랑을 고백한
한국의 순교자들을 자랑스러워하오니
다시 오시는 그 날
각자가 가진 그릇대로
당신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저희를
부끄럽게 여기지는 말아주시옵시요. -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강제시 연락처) : (310)720-824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에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프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엄은섭 도로테오, 전승유 시몬 (생) 정해홍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 고준희 제임스, 김인영 베드로, 이현호 요한, 서인수 요셉, 김현숙 마리아, 김동욱 요아킴, 주옥금 마리아 강세황 루카 & 김경숙 마리아, 오분세, 차영상 베드로, 서언년 모니카, 차준수 요셉, 차유순 안당 수녀, 차홍석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최건 바실리오, 김정진 바오로 사제, 장금구 크리스토토 사제 (생) 유우학례 안나, 홍주희 안나, 홍준호 프란치스코, 이명순 크리스티나, 홍진순 로사, 정동호 하상 바오로 & 병옥 율리아 가정, 이서형 미카엘라, 최성자 카타리나, 토린스 북구역 가족들, 정열모 미카엘 & 미카엘라 가정, 채수환 마태오, 남가주 제31차 여성 꾸르실로 참가자들, 송기분 수산나, 박상대 마르코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3,1-9

화답송 ○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몬을 귀양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하였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집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거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1-39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라,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카(Luke) 9,23-26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43	108
봉헌	259	224
성체	291	304
파전	392	339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

▶ 신성 불가침한 인간 생명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죄한 인간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훈령 「생명의 선물」(Donum Vitae)은 인간 생명의 신성 불가침성에 대한 하느님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

실제로 성서는 "살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법을 하느님의 계명으로 제시한다.(출애 20,13; 신명 5,17). 본인이 이미 강조했듯이 이 계명은, 주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과 맺으시는 계약의 핵심인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계명은 악과 폭력이 만연했기 때문에 정화하기 위해 내렸던 홍수의 벌 이후에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맺은 본래의 계약 안에 이미 담겨 있었다.(창세 9,5-6 참조).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모상대로 비슷하게 만드신(창세 1,26-28 참조) 인간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심을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은 신성 불가침한 성격을 받았으며, 이 성격은 창조주의 불가침성을 반영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어기는 모든 행위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 계명은 모든 생명들이 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이다. 하느님께서는 무고한 이를 보호하시는 "고엘(goel)"이시다.(창세 4,9-15; 이사 41,14; 예레 50,34; 시편 19,15 참조).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산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신다.(지혜 1,13 참조). 오직 사탄만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 사탄의 질투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지혜 2,24 참조).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사탄은 또한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버지"(요한 8,44)이다. 사탄은 인간을 기만하여, 그것을 생명의 목적과 열매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죄와 죽음을 꾀하게 이끈다.

54). 명시적으로 규정된 "살인하지 못한다."는 이 명령은 강력한 부정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최후의 한계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명령은 묵시적으로 생명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고무하고 있다. 이 명령은 생명을 증진하고, 서로 주고받고 봉사하는 사랑의 길을 따라 걷도록 용기를 준다. 비록 느리고 어느 정도의 장애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계약의 백성은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며,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은 것이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마태 22,36-40 참조). 성 바오로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율법 안에 채택되고 완성된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마태 19,16-19 참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도 요한의 말은 단호하게 울려온다.(◆계속)

세상의 사막에서 곳곳이 신앙을 전파한 순교성인들

언젠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 수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미국 남서쪽의 어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에 살면서 진정한 수도승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비디(DVD) 하나를 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가 살고 있는 사막 수도원의 전경과 하루 일과,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수도승들의 모습 등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저런 곳이 있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고독한 모습속에 기도와 노동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수도원의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세상과 스스로 격리된 삶, 고독과 적막 속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막 한가운데의 수도승 삶은 현재 우리의 생활과는 꽤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 후 일 년 정도가 흐른 뒤, 그에게서 메일 한통이 전해 왔습니다. 사막 체험 3년을 마치면서 사막은 공간적이고 지리적 사막이 아니라, 마음의 사막이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 수도원으로 와서, 또 다른 사막에서의 삶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사막에서 주님께 바치는 기도는 참으로 절박하고 힘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순교자들도 역시 당시 박해라는 고독과 고난의 사막체험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박해하는 자를 피해, 산골짜기에서 웅기를 구워 생기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묵묵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라는 사막에서 그것을 피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늘 퍼런 칼날 속에서도 순교자들은 신앙을 전파하였습니다.

친척들을 입교권면하고, 나아가 존락을 선교하여 '교우촌'을 형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성경적해", "천주가사"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굳건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해라는 사막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도승처럼 사막 속에서 살면서 고독을 인내하며 하느님을 찬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수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마음의 사막"이 오늘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박해입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체험되는 고독과 소외 그리고 아픔 등은 우리의 사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해시기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신앙 전파에 온 힘을 쏟으신 순교자들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고독과 아픔이라는 사막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느님을 찬미하고 더욱 열심히 전교하여, 우리 신앙을 빛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사막에서도, 박해라는 사막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만 체험되고 아파하는 사막이 아니라, 나를 위안하고 보호하는 수도승들의 공동체가 있었고, 같은 신앙을 나누었던 선조들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주님께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현대의 사막에서 나 혼자 느끼는 적막감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함께 그 사막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혜룡 사도요한 신부 / 선교전례 사목부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서현수 올리아	황지영 안젤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희자 마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한가위 추석명절 합동 위령미사**

9월22일(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으로 한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 드리는 날입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이 명절 미사를 봉헌합니다.

- **연도와 분향** : 9월22(수)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미사 중-
- 미사후 추석음식과 송편나눔이 있습니다.(성모회 준비)

◆ **본당 올뜨레아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9일) 낮미사 직후, 점심식사 제공
- 장소 : 강당
- 남가주 제31차 여성 꾸르실료 참가자 : 윤경옥 실비아, 이호미 엘리사벳, 김진희 골롬바, 김미현 크리스틴
- * 봉사자 : 엄혜은 도로테아
- 많은 기도와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올뜨레아 간사 ☎(310)749-0276

◆ **'예수님의 생애' 영화 상영**

- 일시 : 9월23일(목) 저녁미사 후
- 예비자들은 이 영화관람을 교리공부로 대신하며, 일반 교우들의 관람도 환영합니다.
- 장소 : 성전

◆ **사목 상임위원회 연수**

- 일시 : 9월26일(주일) 오후 1시~5시
- 장소 : 강당

◆ **성 빈첸시오 사제 기념일 불우이웃돕기 행사**

본당 빈첸시오회가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9월27일, 월)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 9월26일(주일) : 친교자리 점심 및 홈페이지 김치 판매

- 미사 : 9월27일(월) 오후 6시
- 활동회원, 명예회원 및 홈리스 봉사자들 그리고 앞으로 명예 회원에 관심있는 교우들도 초대합니다. 미사후 친교장에서 저녁식사가 있습니다.
- 문의 : 박홍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310)283-5879

◆ **전례분과 미사 해설자 및 독서자 교육**

- 일시 : 10월3일(주일) 오후 2시~3시, 성전 (구역장 반장회의 직후)
- 새 신청자도 모두 참석 바랍니다.
- * 문의 : 전례분과장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 **안나/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장소 : 10월19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대상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55명 정원)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샌들
- 접수 : 김금자 테레사 안나회 회장 ☎(310)539-9526
- 한춘선 루시아 총무 ☎(310)738-4387

◆ **백삼위 성당 "청소년 오케스트라(가칭)" 단원 모집**

교회 음악의 발전과 본당 미사 전례의 향상을 위해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5학년~12학년 남녀 학생
- 자격 : 오케스트라에 편성된 악기 연주가능 학생(초보가능)
- 문의 : 김정화 소화테레사 ☎(310)597-2729
- 김 용 스테파노 ☎(310)926-2248

◎ **새로 나온 신자 환영합니다.** ◎

♡ 이서귀 살로메(토런스 서구역)

♡ 하창식 프란치스코 & 한선자 베로니카 부부와 아들 하재훈 토마스(P.V. 구역)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19일(주일) : PV 2반(육개장 \$3)
- 9월26일(주일) : 민첸시오(치킨테리야키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권태만	금영도	김교복	김대우	김병학
	김양금	김옥보	김옥찬	김윤진	김일선	김재영
	김정희	김충섭	김현숙	남성철	노찬술	모은기
	문충한	민기남	민소예	민찬기	박완철	박정자
	반비오	석순영	안민수	오 진	유선식	윤희동
	이귀분	이은록	이인석	이일길	이태옥	임 순
	장영진	정규숙	정열모	정해홍	정훈모	주대중
	차병용	최길주	최의수	한길선례		
	합계 : \$3,765					
	미사헌금 : \$2,839					
성전헌금	구자운	권태만	금영도	김교복	김대우	김병학
	김양금	김옥보	김윤진	김일선	김정희	김충섭
	김현숙	남성철	노찬술	모은기	문충한	민기남
	민소예	민찬기	박완철	반비오	석순영	안민수
	유선식	이귀분	이은록	이인석	임 순	정규숙
	정열모	정해홍	정훈모	주대중	차병용	최길주
	최의수	한길선례				
	합계 : \$2,535					
	주보광고후원금 : \$250					

공지사항

- ◆ **본당 비품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지난주일(12일)부터 주일학교/한국학교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주시고, 교실
 사용 후 책상은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수업시간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45분
 * 한국학교 수업시간 : 주일 낮 12시~오후 3시
-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새학기 등록 서두르세요.**
 아직 새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주일미사 전후 현관
 에 마련된 접수처에 서둘러 마치기 바랍니다.
 (Late Fee \$10추가)
 ● 문의 : 주일학교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한국학교 이해레나 교장 ☎(310)347~8765
- ◆ **장준서 유스티노, 제1회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장학생에 선정**
 백삼위 한국학교의 장준서 유스티노 학생(10)이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인 자세로 제1회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주최 장학생에 선정
 되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남가주 소식

- ◆ **제2기 변형강학회 모집**
 ● 강학내용/과정 : 매월 2회, 2년 과정. 한국천주교회사와 미국
 교회사를 중심으로 민족의 구원사와 영성을 공부하고 기도
 하며 성지순례를 통해 신앙을 쇄신, 영성을 심화합니다.
 ● 강학반 : 주일반 9월19일 개강 오후 2시~6시
 주중반 9월21일 개강(화) 오후 2시~6시
 ● 회비 : 한 학기당 \$60
 ● 강학장소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원 내 한국순교자
 ● 영성센터(16276 California Av. Bellflower, CA 90706)
 ● 문의 : ☎(562)461-8100
- ◆ **남가주 한인가톨릭 미술가회 제14회 연례 전시회**
 ● 일시 : 9월24일(금)까지
 ● 장소 : LEE & LEE 갤러리(33130 Wilshire Bl. #502 LA)
 ● 지도 : 김효근 야고보 신부
 ● 문의 : 김윤진 카타리나 ☎(310)997-5545
- ◆ **모 안토니오 신부님(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사제서품 50주년 감사미사**
 ● 일시 : 9월25일(토) 오후 5시30분
 ● 장소 : 성 그레고리 한인성당(900 S. Bronson Av. LA)
 ● 축하식 : 미사 후 ☎(323)734-4946
 ● 화환, 꽃다발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 연수 및 9월회의	오후 1시~5시
-----------------	----------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이순자 비비안나 834-8856 9/10(금) 오후 7시 성당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민안나, 석안젤라 530-7702 9/11(토) 오후 7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9/16(목)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우용 시몬 (213)369-0288 9/17(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야카토 619-7763	윤바오로 & 실비아 316-7819 9/11(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방미숙 마리아 720-2876 9/11(토)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이명자 마가렛 433-9075 9/17(금) 오후 7시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희자 마리아 972-9193 9/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이현창 야고보 626-7348 9/18(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9/10(금) 오후 7시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조소영 수산나 808-5005 9/11(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김옥보 안나 518-1736 9/8(수)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9/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진영 프란치스코 377-2228 9/10(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허정자 리타 377-3820 9/17(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9/14(화) 오전 10시30분

말씀의 이삭

‘박순집’을 생각한다.

강화도의 갑곶순교성지에도 가을은 오고 있었다. 순교자성월을 맞아, 위대한 평신도 박순집을 그리워하며 강화를 찾아갔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성지안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찾는 이가 없는 평일의 한적함 속에 박순집의 묘소는 말이 없었다.

박순집, 그를 두고 ‘오직 순교자를 모시는 일에 혼신을 다한 위대한 신앙의 증인’이라고 한다. 그는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온몸을 바쳤고, 후에는 순교자 153명에 대한 증언을 남겨 우리의 순교사를 뒷받침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인천교구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헌신적인 삶을 산 ‘맘의 순교자’였다.

조선에 입국한 첫 서양 선교사인 모방, 사스탕 신부와 앙베르 주교가 3년 만에 새남터에서 순교했을 때, 시신을 찾아 노고산에 안장한 분이 바로 박순집의 아버지, 박 바오로였다. 머리가 잘린 순교자 세 명의 시신을 찾아 나를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몸통은 들거나 업고, 입으로는 잘린 머리통의 수염을 물어서 옮겼다는 일화는 얼마나 장엄한가.

박 바오로는 4년 후 세 분 성직자의 유해를 선산인 삼성산으로 이장하며, 이 모든 것을 아들 박순집에게 알린다. 박순집의 고증에 의해 삼성산에 묻혀 있던 그분들의 유해가 발굴되어 명동성당에 안치된 것이 1901년, 58년만의 일이었다. 종교의 자유를 얻기까지 박순집 일가에서 16위의 순교자가 탄생한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리하셨을까. 박순집만은 82세까지 살아남아 한국 순교사에 깊은 자취를 남긴다.

이분의 셋째 딸 박향월은 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입회, 한국 첫 수녀가 되었다. 함께 지원했던 다른 세 명의 지원자가 입회한 지 한두 해만에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만은 95세의 나이로 선종하면서, 78년이라는 긴 수도자의 길을 걸었다.

갑곶성지의 십자가고상은 그 높이가 특이하다. 예수님의 발이 바로 우리의 얼굴 높이에 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 십자가고상의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며 기도하기 위해 줄을 서곤 한다. 박순집의 묘는 바로 그 뒤편에 있다.

박순집, ‘그가 없었다면...’이라고 묻지는 말자. ‘그가 있었기에...’라고 말하자. 그는 손이 타들어가는 햇불을 들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했다. 그가 ‘오늘 우리들의 순교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없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한수산 요한 크리소스토모
〈소설가, 세종대학교 교수〉

주보로 배우는 교리

☞ 대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대부모나 대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세례 받던 날 대부님이 목주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대부님과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대모님의 얼굴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공감가는 내용이지요!

예비신자들은 예비기간 중 선발예식을 하기 전에 대부 또는 대모를 정합니다. 대부모는 선발일부터 그 직무를 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그 징표로 선발예식 때



예비신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놓는 의식을 합니다. 그것은 예비신자를 형제자매로서 도와 주며 신앙의 좋은 모범으로 이끌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대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믿음의 동반자로서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자녀들은 대부모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교회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배웁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교회의 또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모는 신앙의 부모로서 이제 곧 태어날 아이에게 태교를 하는 것처럼, 또 갓 태어난 아이에게 쏟는 정성으로 대자녀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견진’이라는 신앙의 성숙한 어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모는 예비신자와 새영세자들을 교회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법은 대부모가 세례성사나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의 친부모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모의 자격은 최소한 16세 이상으로 견진성사를 받은 가톨릭 신자이어야 합니다. 세례성사 때의 대부모가 그대로 견진 대부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봉사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들은 좋은 명성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더욱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1티모 3,13)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